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캠퍼스의 류청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학자와 함께 하는 인생 이모작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소통의 문제와 제너레이션 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기나길면서도

아주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부터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세대 이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세대를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7개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우리와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세대가 태어나던 시대를 베이비부머 시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부머 세대, 우리 세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게 3세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인

2세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손인 4세대와 그다음에 손주대인

5세대까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 세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대부분이 아마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구한말에도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제 시대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외압에 의해서 살던 일제 시대를 통과하고

또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 상황에서도
살아남으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재건기에도

꿋꿋하게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벅찰 정도로
힘든 지금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도 건재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살고는 계시지만
마음으로는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90세이신데요.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미래를 예측해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부모 세대들의 주요 특징은
Silent입니다. 침묵, 조용.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적인 인재상의 특징을 보면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해야만 살아남는 시대에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분들이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은 이상하게

ë¥□ì² -16-5M MP4 [□í□µë¬ , ì □, □ë□□□ì□ ´ ê° .pdf[2019-11-05 오후 1:19:35]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베이비부머 세대로 G 3세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우리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정말로 자기주장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절대

명령에 순종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우리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네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조직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4세대인 우리 자손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들이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우리 자녀들은

베이비부머인 3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세대가 살아왔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바라보는 우리 자녀 세대, 4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고생을 해서 일궈놓은 경제 기반 아래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 많은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늘 제한된 프레임에 갇혀 사는

그런 세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부모 세대를 조용한 Silent 세대,

우리를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한다면 바로 4세대인 우리
후손들은 바로 저항 세대다 그래서 X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던 세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세대를
프레임에 갇혀 있는 세대라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사회적, 교육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시험 범위를 정해주고

그리고 그 시험 범위 안에서 시험을 봅니다. 청소년기를
거의 대부분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지나간 우리의

자손들은 시험 범위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누구와
경쟁해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무한 경쟁을 시키면
도대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해매기 시작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프레임에

갇힌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자손들의 세대, 우리 자녀들은 세대들은

창의성이 취약한 그런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ë¥□i² -16-5M MP4 [□í□µë¬ , ì □, □ë□□□ì□ ´ ê° .pdf[2019-11-05 오후 1:19:35]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창의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혀 답답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 손주 세대인

5세대는 어떨까요? 여기는 한술 더 뜹니다. 정말로
고생의 고 자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보고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들은 자유분방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자유분방형의 세대를 보통 X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Y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세대인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우리 조상인

바로 2세대 Silent, 조용한 세대인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손주 세대 이런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이들을 운영함으로써 세대 간 최대한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도

인생 이모작을 행복하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세대 간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 가면 갈수록

소통의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와 관련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제가 자랄 때 즐겨
들려주셨던 것인데요. '신언서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바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상대의 용모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가짐이 바른가, 흐트러진 데는 없는가, 눈빛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일단 시각적으로 그 사람과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는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것들이

예의범절이 갖춰져 있고 품격이 있나, 이것이 두 번째로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헤어집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서로
연락할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지금처럼 문자나 전화를

쓸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글을 쓰게 됩니다. 세 번째 소통 방법으로 문장,

글자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그 사람이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어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의식과 철학이 들어 있나

이런 부분들이 세 번째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ë¥□i² -16-5M MP4 [□í□µë¬ , ì □, □ë□□□ì□ ´ ê° .pdf[2019-11-05 오후 1:19:35]

위기상황이 됐을 때 가장 주어진 조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가, 판단 능력 이것을 마지막 네 번째

소통 방법으로 여겼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수순을 밟아갈 거로
보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많은 글로 서로 대화를 했고,

그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직접 마주앉아서 스피킹,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는 주로 문자 중심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난 것은 우리가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를 풀자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오해가 더 쌓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한계와 취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은연중에 글자로 문자화되어 있는 또는 인쇄되어 있는
글자들은 상당하게 진리에 가까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사의 많은 갈등과
소통의 문제와 세대차이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장 해결하는 좋은 방법으로
아마 미래에는 텔레파시라는 개념이 상용화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거리를
의미하는 tele라는 단어하고, 느낌을 상징하는 pathe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건데요.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떨어진
곳에서도 서로 느끼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소통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오감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마음과 정신의 힘 정도로 우리가 설명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자성어를

살펴보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심전심이라는 단어도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사극에서도 가끔 봤었죠.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얼굴 근육에 나타나는 미세한

움직임을 보고서도 그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본다는
독심술 이런 것들도 텔레파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하게 과학적으로 많은 입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전화로 하는 거에 비해서

오해가 많이 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상당히 과학이라고 합니다. 왜냐?

두 사람의 머리, 다시 말하면 뇌가 가까운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보다도

텔레파시에 의해서 공감대가 더 형성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의
고등국방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Silent Talk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텔레파시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텔사에서 기계와 인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BCI & BMI도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BCI는

Brain이라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BMI는 인간의 뇌인 Brain과

Machine 기계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통의 문제와

제너레이션 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ë¥□ì² -16-5M MP4 [□í□µë¬ , ì □, □ë□□□ì□ ´ ê° .pdf[2019-11-05 오후 1:19:35]